

중남미 지역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우리 업계 의견 수렴

- 멕시코,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본격 추진에 앞서 기업·기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4월 2일(목) 서울에서 「중남미 지역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등 중남미 진출 주요 기업 및 지원기관(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이 참석한 가운데,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관련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지난 20여 년간 4배 이상, 투자가 약 24배 이상 크게 증가하며 핵심 시장이자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멕시코는 북미 공급망 거점이자 중남미 내 1위 교역·투자국이며, 메르코수르(MERCOSUR)*는 인구 2.7억 명, GDP 2.9조 불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나 아직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산업부는 이들 지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광물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메르코수르(MERCOSUR)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관세동맹('91년 출범), 볼리비아는 '24.7월 정회원국이 되었으나 아직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에 미참여

이날 간담회에서 권 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다변화는 우리기업과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며, 중남미 최대시장인 멕시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진출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담당부서	통상교섭실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선애 (02-2100-1370)
		담당자	서 기 관	모덕춘 (044-203-5737)
			사 무 관	장현태 (044-203-5736)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4.2(목) 10:00~11:00 / 대한상의 소회의실4 (지하2층)
- 참석 대상
 -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주재)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중남미대양주통상팀
 - (민간) 완성차·차부품·가전·철강 분야 협회 및 기업
 - (기관)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 논의 주제 : ①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추진현황
② 기업·기관별 수요·관심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 **진행 순서(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 개회 및 모두발언	통상교섭실장
10:05-10:10 (5')	• 중남미 지역 무역협정 추진현황	인태팀장
10:10-11:00 (50')	• 자유토의(업계 수요 및 애로사항)	참석자 전원

참고 2

참석자 명단

	소속	성명	직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	권혜진	실장
	통상협정정책관	박근오	국장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김선애	팀장
		모덕춘	서기관
		장현태	사무관
		우현도	주무관
	중남미대양주통상팀	이동섭	팀장
		김하은	사무관
업계	현대차	장재량	상무
	삼성전자	강연호	상무
	포스코	홍준영	실장
	현대모비스	이현섭	상무
	LG이노텍	정상훈	전문위원
유관기관	대한상의	윤철민	본부장
	KOTRA	김준규	실장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